

2. 安全點檢報告書樣式改正

현행 안전점검 보고서 양식에 대한 개정 작업이 끝나 현재 승인 절차만 남아 있다. 이 개정 작업은 방재 연구 각분과 위원회에서 상당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온 작업으로서 지난 10월 8일 열린 방재연구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개정안으로 확정 승인신청키로 했다. 이 양식은 앞으로 이사회 의 재가를 거쳐 내부부의 승인을 얻는 대로 곧 사용될 예정이며 그 목적과 개정 방향 등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目 的 ◆

○ 현행 안전 점검 보고서 양식의 제 문제점을 보완하여 안전 점검 업무의 내실을 기하고 보고서 작성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

◆ 改正方向 ◆

○ 안전 점검 보고서 양식을 고정 시설 사항의 기록 보존을 위한 “시설 카아드”와 시설의 유지 관리 상태 점검을 위한 “점검 양식”으로 구분하고 “시설 카아드”는 변동 사항만을 보완함으로써 시설 사항의 반복 작성을 지양, 인력을 효율화함(“시설 카아드”가 장기 보존 사용되므로 기존 “보존 카아드”는 폐지).

○ 보고서 양식은 건물의 용도·규모에 따른 구분 없이 건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양식을 선택 사용토록 함으로써 양식 관리를 간소화함.

○ 시설 카아드는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여 방재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토록 함.

○ 점검 항목 배열은 전공 분야별 배열을 지양하고 점검 내용을 방재적 기능별로 파악 가능토록 함.

○ 점검 항목은 방재 관계 법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법규 이외의 건물별 특성(용도, 규모, 배치 등)에 따른 위험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점검 효과를 제고함.

그 밖에 보고서 양식 개정과 관련된 일부 점검 규정도 개정 중에 있다.

3. 外國 防災專門家招請 教育 및 懇談會 實施

當協會에서는 지난 10월 13일과 10월 19일에 각각 “日本 消防設備安全 센터”의 구마노(熊野 陽平)理事長과 캐나다의 “國立研究所”(NRCC)에勤務하는 防災專門家 쓰찌야(土屋 能男)博士를 招請하여 防災의 全般的인 事項과 우리 協會가 推進하고 있는 防災試驗所設立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諮問을 받고, 우리의 防災技術 및 制度上的 懸案問題點과 外國 現況과의 比較討議를 비롯, 廣範圍하게 意見을 交換하였다.

이번 招請計劃에 있어서 구마노理事長은 當協會理事長께서 NFPA 第86年次總會에 參席後 歸路에 “日本 消防設備安全 센터”를 視察하신 後 訪問이 이루어졌고, 쓰찌야博士의 訪問은 技術職員の 能力向上을 위한 外國 研究員 招請計劃에 의한 것이다.

이번 行事中 懇談會에는 任員을 爲始하여 技術部署 次長級以上 및 試驗所設立 推進要員 등이 參

席하였으며 이會議은 우리측의 質問에 招請人士가 意見을 開陳하는 形式으로 進行되었다. 또한 쓰
찌야 毒性의 “火災時 發生하는 煙氣 및 毒性 가스에 대하여” 라는 主題의 講義는 本部의 技術職 員
全員이 參席한 가운데 約 2時間에 걸쳐 實施되었다.

구마노 理事長 및 쓰찌야 博士와 가진 會議內容中 중요한 部分을 골라 本誌 끝에 特輯으로 揭
載함

화재예방 있는 곳에

웃음있고 행복있네